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9.21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Time to Power: 엔비디아와 에머랄드AI가 제시한 해법

전력의 수요까지 움직이기 시작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속도가 발전·송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앞서면서 Time-to-Power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NVIDIA와 Emerald AI는 AI 연산을 전력망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Flexible AI Factory를 추진
 - 수요를 조정하는 방식까지 등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계획된 시점에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모듈화, 온사이트, Powered Shell 등의 가치 부각 예상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속도가 발전·송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앞서면서 Time-to-Power가 핵심 경쟁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발전소와 송전선, 변전소 증설에는 수년이 필요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 GPU와 데이터센터를 확보해도 전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컴퓨팅 용량을 매출로 전환할 수 없다. FERC도 2026년 6월 대규모 부하의 계통접속 문제를 다루며 Speed-to-Power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Time to Power: 데이터센터 병목과 세 가지 해법(PMDC, 온사이트, Powered Shell)', 2026.09.17 발간)에서 모듈화 데이터센터, Powered Shell과 On-site Power를 주목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모듈화 데이터센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인력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Powered Shell은 이미 전력이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 계통접속 시간을 줄이고, On-site Power는 가스터빈과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Grid 대기시간을 우회한다. Bridge Power는 정식 계통연결 전까지 임시발전으로 데이터센터를 먼저 가동한다. 모두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 엔비디아와 에머랄드 AI는 전력공급을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을 조절하는 Flexible AI Factory를 추진하고 있다. 에머랄드 AI의 Conductor는 전력망에서 감축 요청을 받으면 AI 작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긴급하지 않은 학습과 배치 작업을 줄이거나 처리시점을 조율한다. 실시간성이 중요한 추론은 유지하면서 데이터센터 전체 소비전력을 낮추는 방식이다. 엔비디아는 AI Factory 설계에 적용해 데이터센터 자체를 조절 가능한 전력부하로 만드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 실증에서도 전력수요를 상당 폭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엔비디아 GPU 256개가 포함된 AI 클러스터의 소비전력을 25% 줄인 상태로 3시간 유지하면서 AI 작업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했다. 런던에서의 실증에서는 Blackwell Ultra GPU 96개가 포함된 환경에서 소비전력을 1분 이내 최대 40% 감축했고, 긴급상황에서는 약 30%를 30초 안에 줄였다. 200회가 넘는 Grid 감축 요청에서도 목표치를 충족했다.
 - Flexible AI는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의 부담을 낮춰 빠른 전력 승인과 데이터센터 가동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최대 500MW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전력망의 공급 능력이 400MW가 있다고 가정하겠다. 기존 전력 공급 방식은 전력회사가 나머지 100MW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가동은 지연될 것이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이 부족한 시점에 AI 연산을 조절해 사용전력을 400MW로 줄일 수 있다면 전력회사는 500MW를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나, 400MW부터 데이터센터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여지가 생긴다. 데이터센터 가동시점도 앞당겨진다. 추후 100MW를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데이터센터의 수요에 맞춰 가동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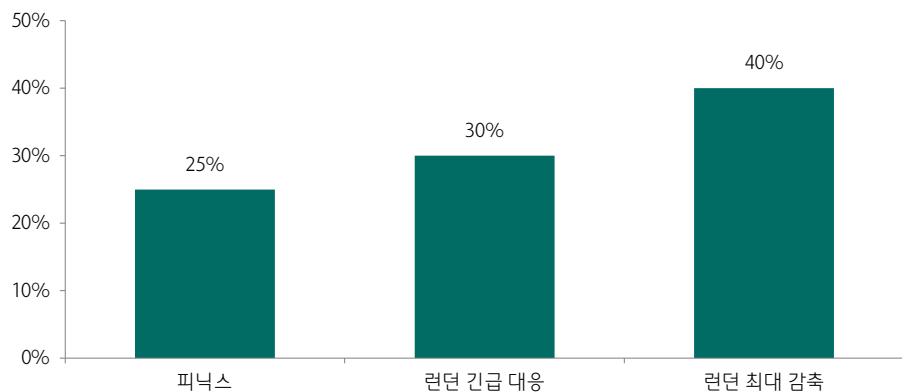
- 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는 전력 사용량을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이 부족한 시간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송전망과 발전설비를 처음부터 최대 사용량에 맞춰 모두 증설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RCOT도 일부 전력을 필요할 때 줄이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해 전체 송전망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더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유연하게 만드는 기술과 이를 계통접속에 반영하려는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Google은 이미 AI 워크로드의 전력 유연성을 실제 전력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Google은 2026년 3월 미국 전력회사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누적 1GW의 데이터센터 수요반응 용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력망이 부족한 시간에는 일부 머신러닝 작업을 줄이거나 처리시점을 이동하는 방식이다. Flexible AI가 소규모 실증을 넘어 하이퍼 스케일러의 전력운영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 Google-NVIDIA-Emerald AI는 9월 16일 AI Energy Management Alliance(AEMA)를 출범시켰다. AEMA는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빠르게 전력을 줄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공통 기준으로 만들고 이를 계통접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VIDIA는 이를 통해 AI 인프라의 더 빠르고 더 큰 계통연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lexible AI를 데이터센터 내부의 효율화 기술이 아니라 Time-to-Power를 줄이는 계통접속 방식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 NVIDIA-Emerald AI 사례의 핵심은 Flexible AI 자체보다 Time-to-Power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전력 확보뿐만 아니라 전력 확보 시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NVIDIA-Emerald AI의 Flexible AI까지 등장한 것은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전력망 확충 속도를 계속 앞선다면 Time-to-Power를 줄일 수 있는 자산과 기술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도표 1. 늘어나고 있는 Time to Power 해법

구분	핵심 방식	줄이는 시간	대표 사례
Powered Shell	이미 전력이 확보된 부지 활용	계통접속·전력확보 기간	GLXY, CIFR, IREN
PMDC	전력·냉각·배전 인프라를 공장 에서 사전 제작	설계·현장시공·설치 기간	Eaton-Siemens Energy 등
Bridge Power	Grid 연결 전 임시발전	정식 전력공급 대기기간	Amazon
On-site Power	가스터빈·연료전지 등 직접 발 전	Grid 의존 및 접속 대기기간	가스발전·연료전지형 DC
Flexible AI	AI 연산의 전력수요 조절	송전망 증설 대기기간	NVIDIA-Emerald AI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2. 엔비디아, 에머랄드 AI, AI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전력수요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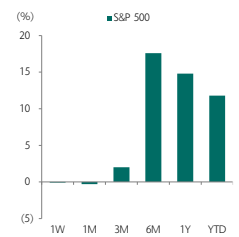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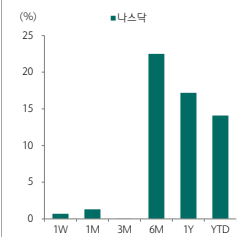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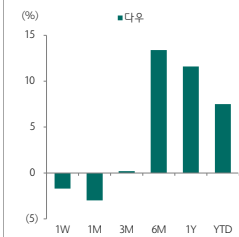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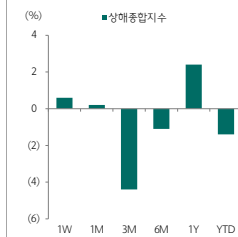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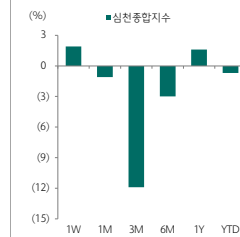
자료: 엔비디아, 하나증권

도표 3. 실험에서 실제 전력시장으로

단계	사례	규모내용
기술 검증	NVIDIA-Emerald, 피닉스	25% 감축 3시간
고속 반응 검증	NVIDIA-Emerald, 런던	최대 40%·1분 이내
실제 전력계약	Google	1GW 수요반응
계통접속 제도	FERC-ERCOT	조절 가능한 대규모 부하의 조기 접속 추진
산업 표준화	AEMA	Google-NVIDIA-Emerald 및 전력 업계 참여

자료: 각 사,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650.5	26,522.5	51,682.6	3,911.9	2,512.6
1W (%)	-0.1	0.7	-1.7	0.6	1.9
					

주) 9월 11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9월 14일~9월 18일) 리뷰: 나스닥 홀로 상승

- 지난주 미국중시 3대지수는 혼조세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만 상승했다. 3대지수의 주간 수익률은 각각 다우 -1.7%, S&P 500 -0.1%, 나스닥 종합지수 +0.7%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3%,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1.5% 떨어졌다. 시장참여자들은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더 선호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주간 가격 변동은 각각 +0.8%, -1.2%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0.8% 상승했으나, M7 제외 종목으로 구성된 ETF(XMAC)는 0.9% 하락했다.
- 시장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FOMC와 클래리티 법안 통과여부였다. FOMC에선 시장참여자들의 예상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라고 연준 인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물가를 목표치 2%까지 신속하게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제활동에 대해선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내 소비의 회복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증가율은 강하고, 자본투자도 양호하다. 경제와 수요가 충분히 강한 상황에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클래리티법은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절차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클래리티법 통과 발목을 잡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이해상충 문제와 스테이블 코인 이자 및 수익 지급이 은행 예금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었다. 클래리티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거의 없어 이번 회기 내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리티법 부결 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선 기존 주식 및 증권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Innovation Exemption). 클래리티법 무산에도 미국의 가상자산 및 토큰화 자산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 상승 상위섹터는 헬스케어(+1.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2%), 정보기술(+1.1%) 등이다. 헬스케어는 AI 관련주의 변동성이 발생하는 동안 생명과학 장비, 진단 기업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보기술은 AI 관련주의 상승이 특징적이다. 주 초반 AI 모델 개발 속도조절론으로 약했으나, 주 후반 금리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보였다.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커뮤니케이션은 알파벳과 메타의 강세가 섹터 수익률을 견인했다.
- 하락 상위 섹터는 유틸리티(-3%), 금융(-2.3%), 부동산(-2.3%) 등이다. 유틸리티와 부동산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은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이익 개선 기대는 있으나, 자본시장 수익 둔화, 예금비용 상승, 비용 부담 우려 등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 초대형 기술기업은 아마존(-1.2%), 마이크로소프트(-0.4%), 테슬라(-0.3%) 등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GOOG +3.3%, META +2.7%, NVDA +1.8%, AAPL +1.2%). AI 모델 개발 속도조절론이 언급되며 알파벳과 메타 등엔 자본지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다. 엔비디아는 투자둔화 우려가 언급되긴 했으나, 젠슨 황 CEO는 내년 칩 판매량은 올해보다 두 배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해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긍정적이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은 뚜렷한 약재가 있진 않았다.

» 이번 주(9월 21일~9월 25일) 프리뷰: 미중 정상회담, 관세 협상, 연준 발언과 유가·금리 등

- 이번 주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20일에는 스킷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뉴욕에서 허리핑 중국 부총리와 사전 협상에 나선다. 관세, 희토류와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국의 경제 현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특히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관세 휴전의 연장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 관세 문제는 이번 주말 협상을 앞두고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국과 인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국에 100% 관세가 실제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무역협상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미중 관세 협상에 러시아와 이란 문제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 인공지능과 반도체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베센트-허리핑 회담에서도 인공지능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양국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접근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미국의 추가 수출통제 여부가 관심사다. 24일 시진핑 주석을 위한 국민만찬에는 젠슨 황, 샘 올트먼, 손다르 피차이, 제프 베이조스, 팀 쿡, 일론 머스크, 마이클 델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련 발언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 기존 무역협상에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양국은 약 300억달러 규모 상품의 상호 관세 인하를 논의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잉 항공기 구매도 협상 대상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산 항공기 200대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혔고 양측은 더 큰 규모의 항공기 계약도 논의해 왔다.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한 관세 휴전 연장을 넘어 농산물·항공기 구매와 희토류 공급까지 실제 거래 형태의 합의가 나오는지 중요하다.
-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의 만남 성사 여부도 중요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23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압바스 아라키 외무장관 등 핵심 이란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활동 지역에는 제한을 적용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인 만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정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간 걸프협력회의 국가 정상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뉴욕에서 미국-이란 간 직접 회담이 성사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지표 및 이벤트로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21일 8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이전치 -0.08), 22일 9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이전치 4) / 미국채 2년물 입찰, 23일 MBA 모기지 지표 / 9월 S&P Global 제조업 PMI 예비치(이전치 53.9) / 서비스업 PMI 예비치(56.5) / 종합 PMI 예비치(56.0) / 미국채 5년물 입찰, 24일 2분기 경상수지(이전치 -\$2,268억)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19.6만 건) / 8월 신규주택판매(이전치 60.7만 건) / 미국채 7년물 입찰 / Trump-Xi 정상회담, 25일 8월 내구재 주문 MoM(이전치 +1.1%) / 운송 제외 내구재 주문 MoM(이전치 +0.4%) /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등이 있다. GDP 확정치와 PCE 물가지수는 다음 주가 아닌 30일 발표 예정이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연준 인사로는 21일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22일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 Philip Jefferson 연준 부의장 / Thomas Barkin 리치먼드 연은 총재, 23일 Michael Barr 연준 이사, 24일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 Beth Hammack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25일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 Hammack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이 있다. FOMC 직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돼 있어 추가 인상 필요성,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평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은 22일 AutoZone(AZO), KB Home(KBH), 23일 General Mills(GIS), Cintas(CTAS), Paychex(PAYX), 24일 Darden Restaurants(DRI), TD Synnex(SNX), Costco(COST) 등이 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대형 기술주의 실적은 없으며 Costco를 통해 소비 흐름, KB Home을 통해 높은 모기지 금리의 주택시장 영향, Paychex와 Cintas를 통해 고용과 기업활동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AutoZone은 22일, Paychex는 23일, Costco는 24일 실적 발표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9/18)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650.5	0.2	-0.1	-0.3	2.0	17.6	14.8	11.8
나스닥	미국	26,522.5	0.4	0.7	1.3	0.0	22.5	17.2	14.1
다우	미국	51,682.6	-0.2	-1.7	-3.0	0.2	13.4	11.6	7.5
STOXX600	유럽	635.5	-1.1	-0.6	-2.9	-0.3	10.8	14.7	7.3
KOSPI	한국	6,894.2	2.7	-0.2	-0.3	-23.8	19.3	100.1	63.6
KOSDAQ	한국	827.1	0.6	0.8	3.1	-14.4	-28.8	-4.2	-10.6
상해종합지수	중국	3,911.9	0.9	0.6	0.2	-4.4	-1.1	2.4	-1.4
심천종합지수	중국	2,512.6	1.7	1.9	-1.1	-11.9	-3.0	1.6	-0.7
항테크지수	홍콩	24,750.8	0.6	-0.2	-4.8	3.5	-2.1	-6.8	-3.4
TOPIX	일본	4,091.1	-0.1	1.6	0.4	3.2	14.9	29.0	20.0
니케이 225	일본	65,019.0	1.4	1.6	-0.8	-6.0	24.4	42.5	29.2
니프티 50	인도	23,346.4	0.3	-0.6	-3.7	-2.8	1.0	-7.8	-10.7
Vietnam	베트남	1,815.7	-0.4	1.1	2.7	-0.5	10.2	9.5	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9.1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헬스케어: AI 관련주 변동성 확대 속 생명과학 장비, 진단 기업 등 방어적 하위 업종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유틸리티, 부동산: 금리 상승 기조에 부채 부담과 배당 매력 약화가 겹치며 섹터 전반 약세
- 금융: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이익 개선 기대에도 자본시장 수익 둔화, 예금비용 상승, 등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되며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9/13	엔트로픽 CEO "AI 개발 속도 늦춰야"...올트먼·머스크도 동조 엔트로픽 아모데이 CEO가 12일 블로그를 통해 AI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 올여름부터 AI가 차세대 AI를 스스로 구축하는 '재귀적 자기 개선' 능력이 향상된 것과 지난 7월 오픈AI 미공개 모델이 허깅페이스를 무단 해킹한 'OAI-HF 사건'을 계기로 밝힌 것. 중단이 아닌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제3자 안전 평가팀 배치, 민주주의 국가 간 공동 안전 기준 마련, 글로벌 공조 등 3단계 계획을 제안. 올트먼 오픈AI CEO는 "최첨단 기술 발전 속도 조절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머스크도 "다리오가 맞다"며 지지
9/14	트럼프 "AI 속도 늦추면 중에 진다"...업계 속도조절론 일축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머스크, 올트먼 등 AI 업계 수장들이 잇달아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된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들고나오는 부정적인 세력이 있다"고 주장.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베센트 재무장관 등은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지지하는 반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는 등 의견이 엇갈림. 미중 AI 경쟁의 '죄수의 딜레마' 구조 속에서 이달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
9/15	美 EPA, 석탄·가스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전면 폐지 EPA가 기존 및 신설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던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 EPA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가 3,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힘. 아울러 발전소 온실가스가 청정공기법상 위험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 개정안도 발의해 차기 정부의 재규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포석. AI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문턱을 낮추고 석탄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려는 행보로 해석
9/16	메타, AI 통합 구독 서비스 '메타원' 출시 메타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전반에서 AI 기능을 강화한 구독 서비스 '메타원'을 출시. 단일 상품 2.99달러, 개별 번들 7.99달러, 크리에이터·비즈니스 번들 14.99달러부터 시작하며 50개 이상의 기능을 제공. 단계적 도입 과정에서 이미 1,500만 건의 구독·체험을 기록. 기본 앱 기능과 메타AI 기본 이용은 계속 무료 유지. 디지털 광고 외 수익원 다변화와 일일 활성 이용자 36억명 기반 수익화가 목적으로 풀이됨
9/17	블랙스톤·알파벳 합작사 크릭스AI, 구글 TPU 구매에 220억 달러 칩 대출 확보 블랙스톤과 알파벳의 클라우드 합작사 크릭스AI가 골드만삭스, SMBC, 바클리스 등 10개 은행으로부터 구글 TPU 구매를 위한 220억 달러 대출을 확보. 칩 가치와 고객 계약을 담보로 하며 향후 투자등급 회사채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음. 지난주 공식 출범한 크릭스AI는 오픈AI, 엔트로픽 등 AI 연구소에 연산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로 코어워브, 네비우스 등 네오클라우드와 경쟁
9/17	애플, 기업용 AI 서버 개발 중...엔비디아 네트워크 기술 협의 애플이 자체 칩을 탑재한 기업용 서버를 개발 중이며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 기술 활용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 출시는 2029년으로 예상되며 M8 울트라 칩 2개 탑재 기본형과 4개 탑재 고성능형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 예정. AI 개발사, 정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나 프로젝트 백지화 또는 엔비디아 기술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9/18	젠슨 황 "내년 칩 판매량 올해의 2배" 황 CEO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내년 엔비디아의 칩 판매량이 올해보다 두 배 많을 것"이라고 전망. "AI가 여러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진출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AI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며 향후 6개 분기 고성장을 재확인.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칩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으나 지난해 가을 네 개 분기 동안 블랙웰 GPU 600만 개를 출하했다고 밝힌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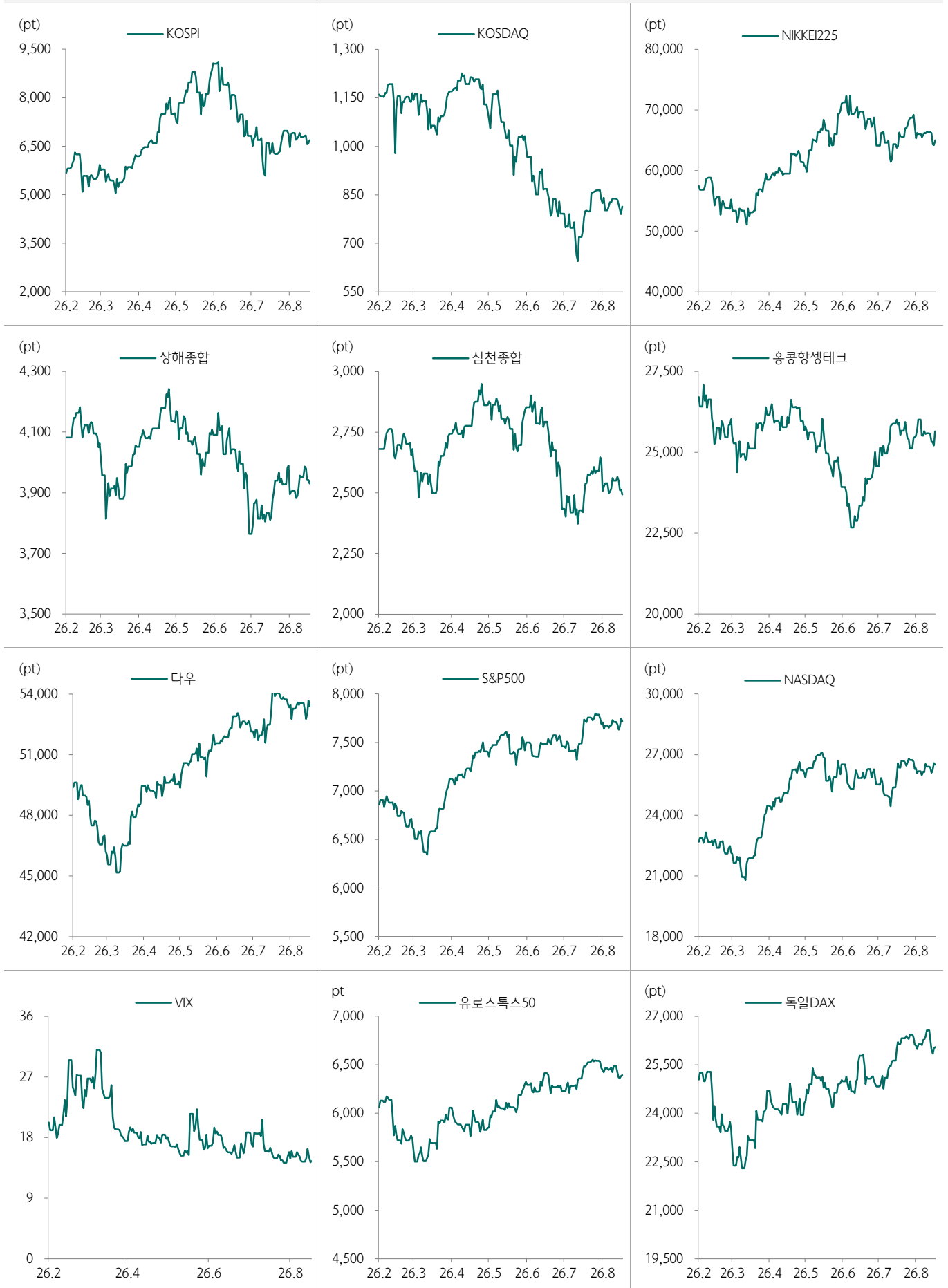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9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PANW MDT CRDO MDB DELL GTLB	AVGO SNOW HPE NTAP	CIEN LULU ZS IOT PL CPB DOCU	
7	8	9	10	11
	TTAN	AVAV	ORCL ADBE M	KR
14	15	16	17	18
	TCOM	LEN	CCL	VFS
21	22	23	24	25
	AZO	GIS CTAS PAYX	DRI SNX COST	
28	29	30		
	CCL KMX	MU J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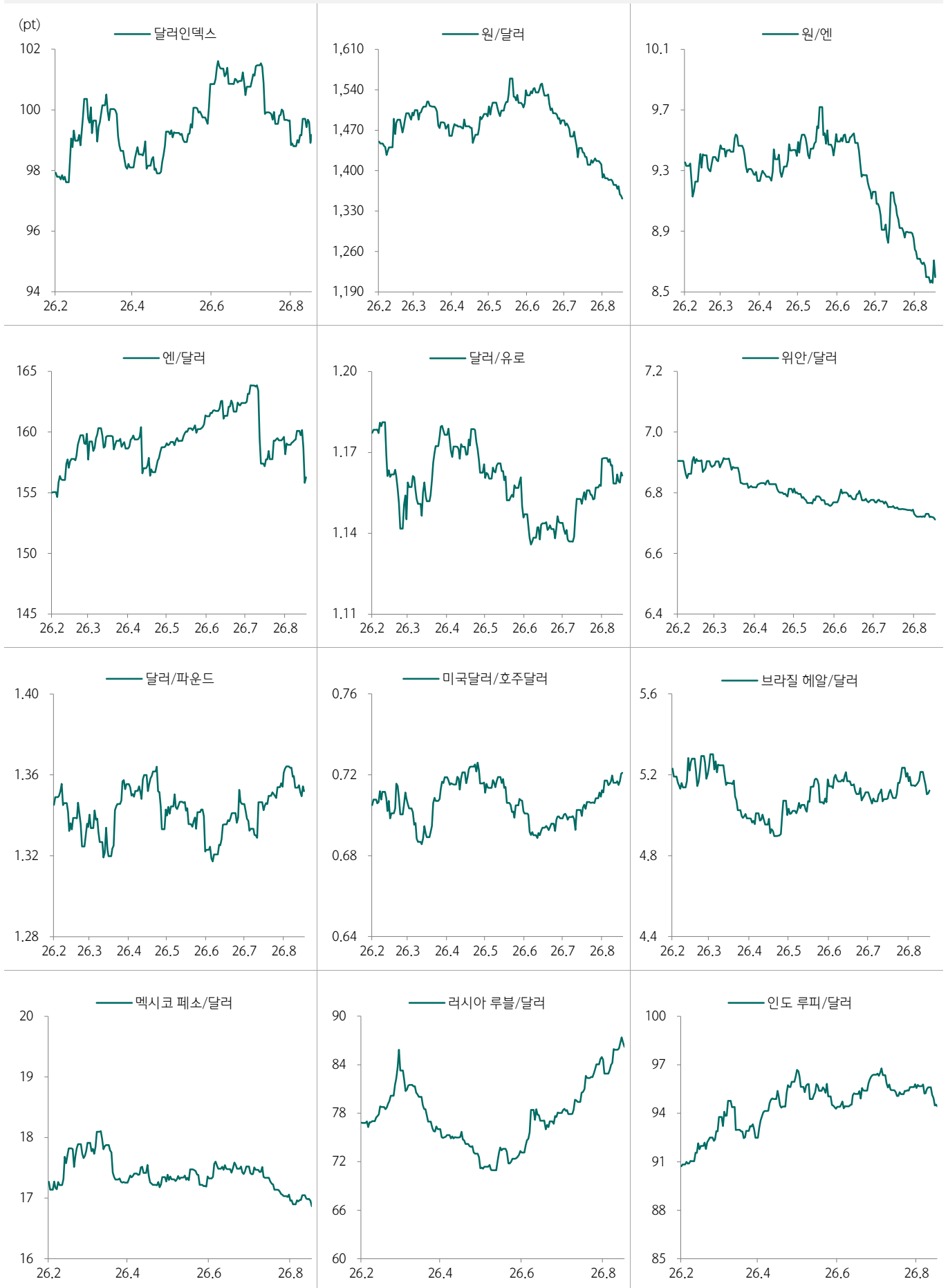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9/23(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3.9) 9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6.5)
9/24(목)	8월 신규 주택판매 (이전 607K)
9/25(금)	8월 내구재 수주 [P] (MoM 이전 1.1%) 8월 근원 내구재수주 [P] (MoM 이전 0.4%) 9월 미시간대 소비자자기대/심리지수 (이전 45.8/47.8) 9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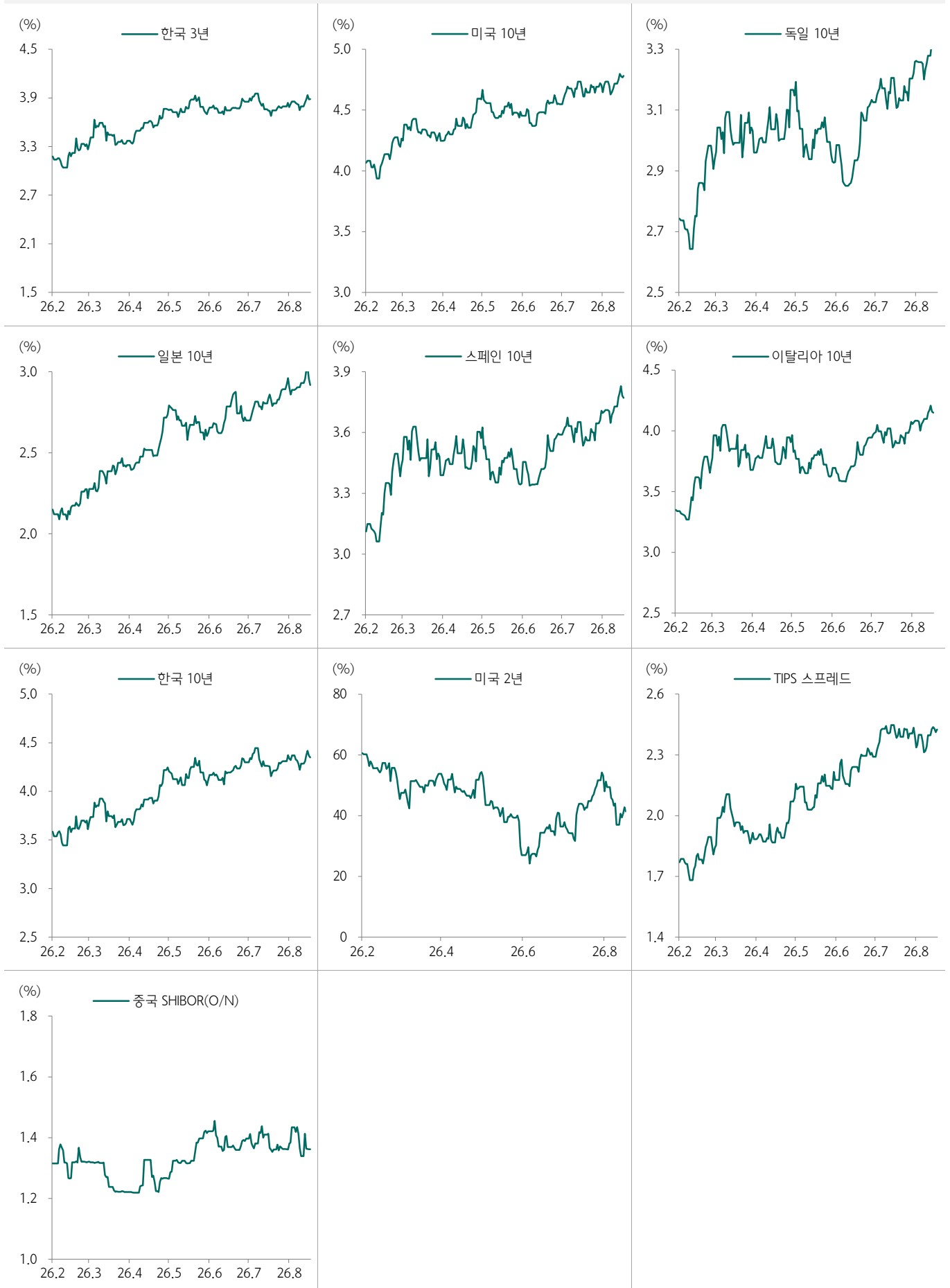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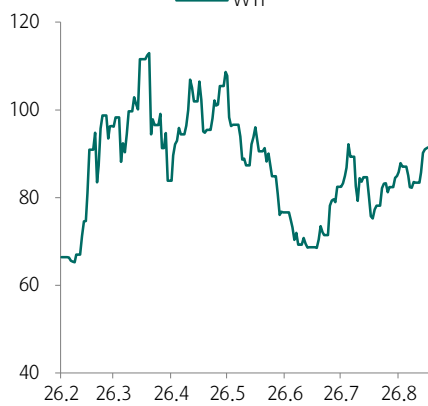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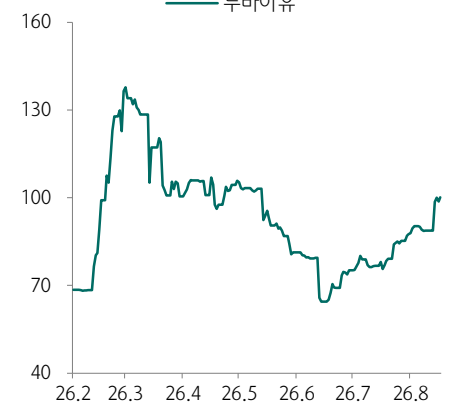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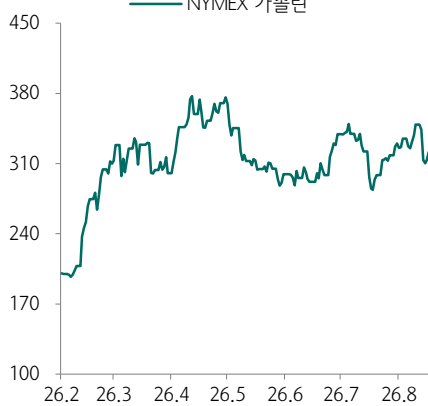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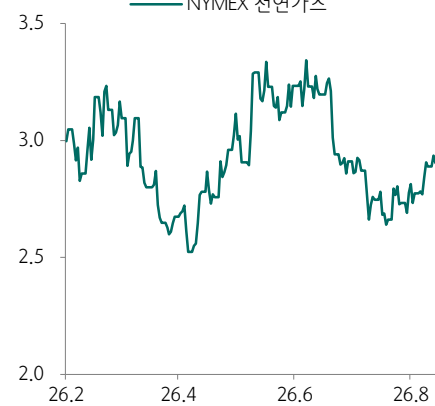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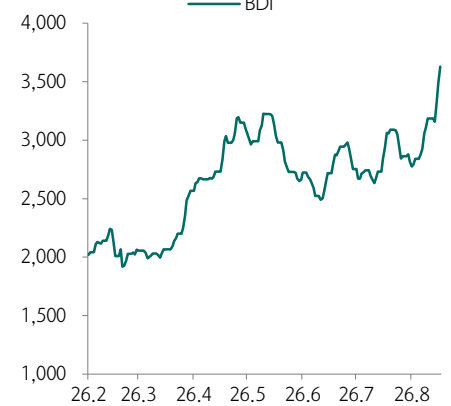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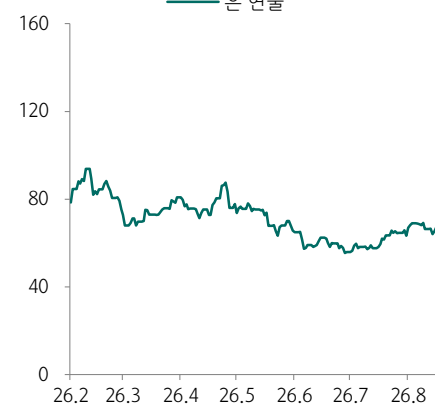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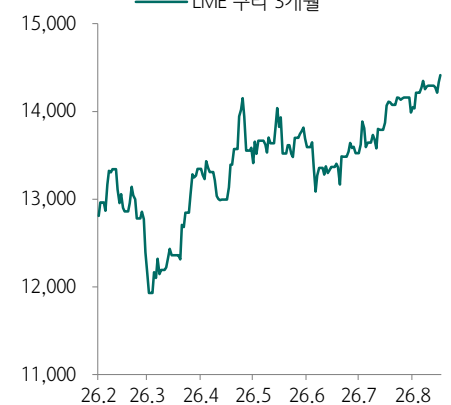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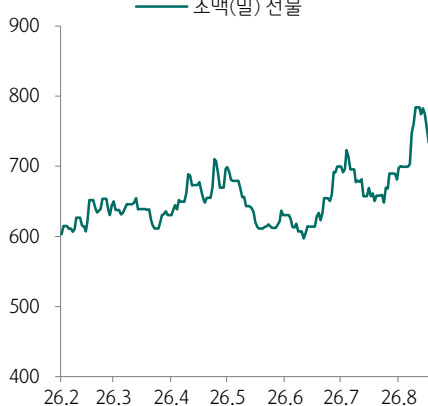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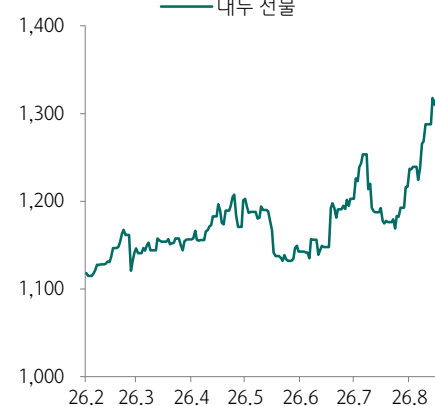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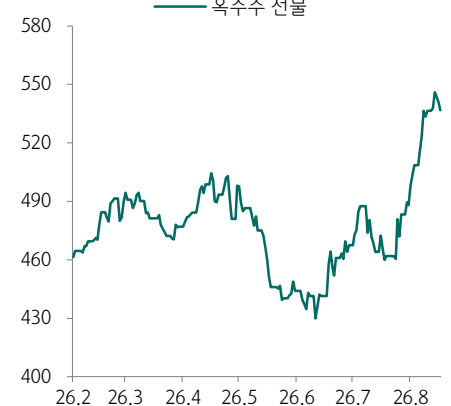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9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